

“중기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 필요”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10곳 중 8곳이 응답... 필요 이유로 '판매수수료 등 비용 절감 기대'가 72.1%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이달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7.1%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기존 T커머스사 대비 판매수수료 등 비용 절감 기대'(72.1%)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완화로 이용 활성화 기대'(59.5%) △'중소기업 편성비용 확

대로 원하는 시간대 방송 편성과 회수 증가 기대'(39.8%) 등으로 나타났다.

T커머스 신규 도입 시 이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97.6%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의사가 있거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80.5%는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T커머스 채널의 대폭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개사 도입만으로는 경쟁

유도 효과 적음'(31.2%) △'홍보 기회 및 판로 확대'(28.7%) △'이용기업의 비교·판단을 위한 채널 선택권 보장'(22.0%)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도입 시 중소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복수응답)은 △'낮은 판매수수료 등 입점 조건 우대'(70.1%) △'상위 채널번호 배정을 위한 송출수수료 우대 등 정책적 지원'(36.1%) △'입점 상담회 등 MD와의 소통 기회 확대'(35.3%) △'제품 선정 후 방송까지 절차와 시간 단축'(26.9%)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T커머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304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T커머스 입점 선택 이유로는 △'회 복화로 방송 부담과 비용이 적음'(42.4%) △'시간 제약이 없어 꾸준한 매출 발생 가능'(33.2%) △'다른 유통 채널에 비해 입점이 쉬움'(13.5%) 등이 나타났다.

T커머스 관련 필요한 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판매 수수료 인하'(75.7%) △'원하는 방송 시간대 편성 및 방송 횟수 확대'(56.6%) △'신제품이나 인지도 낮은 중소기업의 입점 조건 완화'(27.3%) 등이 조사됐다.

/김옥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수원 팔도밥상페어에 참가해 27개사 연일 완판 행진 기록을 세우며 수도권 판로개척의 성공 경험을 다시 한 번 쌓았다.

도내 농수산물 연일 대박행진

바이오진흥원, 2024 수원 팔도 밥상페어에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수원 팔도밥상페어에 참가해 수도권 판로개척을 위해 전북공동관을 운영하고, 참가기업 27개사는 연일 완판 행진 기록을 세우며 수도권 판로개척의 성공 경험을 다시 한 번 쌓았다.

이번 '2024 수원 팔도밥상페어'에서는 도내 전통식품 및 해양수산식품 기업 27개사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해 간편식 뽕편육, 한우곰탕, 와인, 전통주, 간편죽, 계장, 어간장 박대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현장 판매실적 약 2억 2천만 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납품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농수산물 기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기본 제공 부스가 아닌 요즘 세대 흐름에 맞춘 내만의 삼시세끼 테마로 '바다의 보물', '혼술거리', '해장거리', '혼밥거리' 등 다양한 컨셉과 세프복장 착용 등 차별화된 전 북관을 운영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바이오진흥원만의 차별화 공동 판로개척 행사에 참가한 순창기업 맑은상화에프앤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농수산물기업들의 세 일즈 방식 및 제품 변화를 보면서 자사제품의 판로개척 마케팅에 큰 자극을 받았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통해 향후 제품개발 및 마케팅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촌진흥청 · 이랜드, 청년농업인 판로지원 나섰다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 · 가공 상품 이랜드팜푸드'서 판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이랜드그룹 유통부문(대표이사 윤성대)이 청년농업인 판로지원에 나섰다.

전국 청년농업인 3명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상품이 킴스클럽 4곳(강남·강서·불광·분당점), 킴스편의점 4곳(봉천·신정·영창·신촌점), 전자상거래상점 쿠팡에 입점해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입점한 청년농업인은 농촌진흥청 추천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랜드그룹 유통부문 산하(주)이랜드팜푸드에서는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상품을 일괄 직매입했다.

판매 제품은 △'토마토고추장(일반맛, 매운맛)' = 김민성 청년농업인(경기 광주, 토마토아플리에 대표) △'킴빈드립 무카페인(작두콩 커피)', '어린 작두콩 깍지차' = 김지용 청년농업인(전북특별자치도 익산, 그린로드 대표) △'곡물하루(귀리단백질분말)', '친환경 쌀귀리' = 박정윤 청년농업인(전남 영암, 영암귀리부인 대표)이다.

'토마토고추장'은 찹쌀가루 대신 3년간 발효한 토마토발효액을 넣어 글루텐이 없고, 기존 고추장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이 40%가량 낮다.

'작두콩을 볶아 만든 킴빈드립 무카페인'은 커피처럼 향이 구수하고 맛이 짭짤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도 편히 즐길 수 있는 차(茶) 제품이다. 반면, 농촌진흥청과 이랜드그룹 유통부문은 올해 5월 24일 '농식품산업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조기 보급·확대를 위한 상품 개발 △국내 농축산물 및 가공 상품 유통 활성화 위한 판매·관촉(마케팅)

'곡물하루'는 귀리를 비롯해 현미, 보리, 쌀, 대두 등 다양한 곡물로 만들어 물이나 우유에 섞어 마시면 가벼운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이랜드그룹 유통부문은 올해 5월 24일 '농식품산업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조기 보급·확대를 위한 상품 개발 △국내 농축산물 및 가공 상품 유통 활성화 위한 판매·관촉(마케팅)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이랜드그룹 유통부문(대표이사 윤성대)이 청년농업인 판로지원에 나섰다.

△농촌진흥청 선정 최고농업기술명인 및 우수 청년농업인 대상 유통 프로그램 개최에 협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다양한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해 경쟁력 있는 농산물과 가공 상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전 진안지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생필품 전달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사 사회봉사단(지사장 이재환)은 최근 '국호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및 공상유가족 등 5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상담 및 육내 전기설비 점검 △생필품 지원 등 봉사활동을 시행하였으며,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송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진안지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새만금청, 국내 최대 육상태양광 접근성 향상시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리동 내 승강기 설치 가 끝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 계획 준공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2022년 발전을 시작한 이래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연구소, 대학, 일반인들의 견학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담당자와 공무원들도 설비의 기술력과 운영의 노

하우를 배우기 위해 꾸준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새만금 내 유희부지 354만㎡에 설비용량 300MW(메가와트)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로서 지난 2년간 안정적인 발전관리와 운영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이번 승강기 설치를 통해 다양한 방문

객들이 육상태양광 전망대에 보다 쉽게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은 스마트그린 산단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CF100(씨에프백, 무탄소 에너지 100%)과 녹색성장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카카오페이, '걷기 적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카카오페이의 함께 걷기만 해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걷기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은행과 카카오페이가 제휴해 출시하는 '걷기 적금'은 카카오페이 만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걸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으로, 건강서비스와 금융상품이 결합한 웰스케어 상품이다.

전북은행 첫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기간은 6개월, 가입금액은 월 5만 원 이상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앱 페이지에 연계된 전북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고 연 7.0%의 이율이 적용되며, 기본 금리 연 1.0% 우대금리는 최고 연 6.0%이다. 우대금리는

주별 걸은 수에 따라 최고 연 2.4% 매일 걷는 걸은 수에 따라 최고 연 3.6%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걸은 수를 채우지 못하는 날을 고려해 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이 우대조건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건강한 삶과 목표달성 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신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